

작품 속에 설정된 무사도문화와 그 의미

박희영*
hyp072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2.3. 무사도 설정과 작자의 의도 |
| 2. 본론 | 2.4. 무사도문화의 실제와 허상 |
| 2.1. 무사로 설정된 중심인물 | 2.5. 무사도문화의 변용과 내셔널리즘 |
| 2.2. 신의(信義)의 선택방식-무사도와 자결 | 3. 마치며 |

主題語: 무사도문화(bushido culture), 변용(transfiguration), 자결(suicide), 신의(faith), 에도시대(edo period)

1. 들어가며

일본 근세시대의 소설 「깃카노지기리(菊花の約)」는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¹⁾에 실린 9단편 중의 한편이다. 이 이야기는 중국 명대의 백화소설 고금소설(古今小說)의 한 이야기 「범거경계서사생교(范巨卿鵲死生交)」²⁾(이하 「사생교」로 표시)를 원작으로 하였으며, 죽음으로써 신의를 지킨 의형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자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원작에서 개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품의 무대는 전국(戰国)시대 일본의 주고쿠지방(『인토쿠다이헤이키(陰徳太平記)』³⁾의 무대)으로 바뀌었고, 주인공 또한 과거를 준비하는 농민과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1)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에 등장하는 모티브들은 정말 다양하다. 아키나리는 문학과 역사에 능했기 때문에 국내외에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 글을 쓰곤 했다. 인물의 이름, 배경이 되는 지역,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게쓰모노가타리』를 일컬어 전거의 골라주라고 까지 표현 할 정도이다. 그 모티브들에 대해서 이노우에 아스시(井上泰至)의 『雨月物語』典拠一覽 이란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2) 「깃카노지기리」의 스토리는 중국 명나라의 백화소설에서 플롯을 취해 왔다. 「깃카노지기리」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중국 명나라 풍몽룡(馮夢龍)이 쓴 古今小說의 16권에 수록된 「사생교」이다. 「사생교」또한 중국 육조시대의 수신기(搜神記)를 원작으로 하여 쓴 것이며, 수신기는 후한서(後漢書)에서 나오는 범거경의 전기를 기초로 쓰인 작품이다. 하지만 뒤의 작품들은 「깃카노지기리」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사생교」만을 원작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또 다른 전거로는 가가와 마사노리(香川正矩)가 쓴 일본의 군기물인 『인토쿠다이헤이키(陰徳太平記)』가 있다. 이 작품은 전국시대의 주고쿠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로, 「깃카노지기리」의 배경이 바로 이

상인에서 난세 속의 무사와 학자로 바뀌었다.

여기서 본고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점은 개작 과정에서의 주인공의 무사로의 설정과 그 의미이다. 「깃카노지기리」라는 작품이 ‘완벽한 무사의 이야기’라는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이 전형적인 무사의 미화담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이 ‘무사도(武士道)’ 그 자체를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작품 곳곳에서 무사도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깃카노지기리」를 중국의 작품인 원작「사생교」와 비교함으로써 「깃카노지기리」만이 갖고 있는 무사도적 특징과 쟁점을 분석해 이 작품이 쓰일 당시 에도(江戸)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변화와 움직임을 읽어내고자 한다. 에도시대는 전국(戰國)의 난세가 종식된 평화의 시대이며, 유학이 신 시대의 새로운 조류로서 의미를 얻은 시대였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무사상 또한 전국시대와 크게 달라져 『하가쿠레(葉隠聞書)』⁴⁾나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⁵⁾류의 무사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깃카노지기리」는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깃카노지기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깃카노지기리」의 주인공은 왜 ‘무사’로 설정되었는지, 「깃카노지기리」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무사상과 무사도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후에 무사도문화의 변용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무사로 설정된 중심인물

원작에서 각각 농민과 상민으로 설정된 주인공이 「깃카노지기리」에서는 각각 무사와 학자

지역이며 「깃카노지기리」에 중요인물로 나오는 아마고 쓰네히사(尼子經久)가 『인토쿠다이헤이키』에서도 주요인물로 나온다. 「깃카노지기리」의 『인토쿠다이헤이키』의 삽화가 실려 있는 등, 『인토쿠다이헤이키』가 이 이야기의 전거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스토리상의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 4) 에도중기의 무사의 수양서. 아마모토 쓰네토모(山本常朝)의 담화를 다시로 쓰라모토(田代陳基)가 기록한 것으로 쓰네토모가 사망하기 3년전인 1716년에 탈고되었다. 그것은 주로 히젠번 무사의 태도와 정신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구태훈(2005) 『일본무사도』태학사, pp.168-169
- 5) 일본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기독교인, 농업 경제학자, 작가, 교육가, 외교가, 정치가이다. 그의 저서로 『무사도』가 있으며 일본 화폐 5000엔(円)권에는 한때 그의 초상이 실려 있었다.

로 바뀌었다. 「깃카노지기리」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특히 아카나 소에몬(赤穴宗右衛門)의 역할이 극도로 크고, 때문에 이 인물을 설정하는데 작가가 최대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직업을 다름 아닌 무사로 설정한데에 관해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사실 원작을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주인공의 직업은 농민이나 상인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원작에서 범식(范式)과 장소(張助)가 각각 농민과 상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주인공이 농민과 상민이라면 어색해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깃카노지기리」가 쓰인 에도시대는 조닌(町人)문화가 발달한 시대로, 이 시대의 소설들을 보면 서민계층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조닌계층, 즉 서민들끼리의 신의를 보여주더라도 주제가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서 오히려 원작의 느낌은 더 살아났을 것이다.

다만 「깃카노지기리」의 배경이 에도시대가 아닌 전국시대라는 점과 『우게쓰모노가타리』의 독자층은 조닌보다 상류층이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도 상인들과 상업지대의 서민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꾸준히 발달시켰으며, 농민들도 난세 특유의 자치적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 계층이 전국시대의 주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아키나리의 작품의 독자층이 상류층이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상류층을 보라고 쓴 이야기라고 해도 꼭 주인공이 상류층이라는 법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 아키나리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의 직업이 바뀐 것이 변안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를 갖고 바꾸었다는 점이다. 직업의 수정에서 드러난 작가의 의도, 즉 “왜 주인공은 무사여야 했는가”란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격언 중에 ‘꽃은 사쿠라, 사람은 사무라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계급사회였던 일본에서 무사가 최상층을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며, 무사도를 수호하는 무사야말로 만인의 귀감이 될 만 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에도시대, 전체 인구 중 1%에 불과했던 무사계층은 그들의 특별한 권리만큼이나 의무를 부여받았고,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만큼의 존중과 동경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⁶⁾

「깃카노지기리」의 서술방법은 ‘위대한, 완벽한 사람이 신의를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

6) 구태훈. 앞의 책 pp.153-156

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소에몬은 원작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수정은 그의 직업을 무사로 고친 것이 아니었을까. 일본문화에서 무사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이미지⁷⁾를 생각해 보았을 때 본받아 마땅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려지는 주인공의 신분이 무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다면 아키나리가 원작과 비교해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플롯을 먼저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주인공을 무사로 설정한 것일까? 아니면 주인공을 먼저 무사로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플롯을 변경한 것일까?

이 작품은 먼저 교훈을 변경하고 그러기 위해 주인공의 직업을 무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라는 주제를 전달해 모두에게 본받게 하고 싶었는데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볼 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교훈 그 자체보다는 그 장본인이 완벽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주인공에게는 다름 아닌 무사라는 신분이 어울렸기 때문에 무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추론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소설의 플롯이 전형적인 무사 미화담과 흡사하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나 전형적으로 이상적인 무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플롯을 먼저 수정한 후 무사라는 직업이 끼워 맞춰졌다고 하기에는 순서가 반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즉 원작을 보고 그 신의에 감명을 받은 아키나리가 '이 모습은 오히려 무사에 어울리는 행동이다. 이 부분은 무사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무사를 주인공으로 새롭게 고쳐 쓴 이야기가 바로 「깃카노지기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기왕 무사도를 보여줄 바엔 철저하게 이상적인 모습이 더 낫지 않겠냐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작의 범식과의 여러 차이들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깃카노지기리」에는 '신의'라는 주제 외에 하나의 숨겨진 주제가 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무사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작품의 어떤 부분이 무사도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7) 실제 일본의 작품 내에서 완전무결한 인물로 미화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사들이다. 다이랴노 시게모리, 미나모토노 요시쓰네, 구스노키 마사시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이들에 대한 묘사는 영웅을 뛰어넘어 오히려 반신이나 성인에 가깝다. 주위 사람 누구보다도 우월한 능력과 성품, 충절과 의리를 갖추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에는 비극적 운명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깃카노지기리」의 무사 소에몬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보면, 비록 그 규모는 달라도 묘사 자체는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신의(信義)의 선택방식-무사도와 자결

「깃카노지기리」의 정점이 되는 부분은 의형인 소에몬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혼령이 되어 사문 앞에 나타난 부분이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것만을 내내 고민하였지만 성에서 도망칠 방법도 없었다. 거기서 나는 옛 사람의 어느 말이 기억났다. 즉 ‘사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없다. 하지만 영혼이라면 하루에 천리조차도 갈 수 있다.’라고, 나는 자결한 뒤 오늘 밤의 음풍을 타고 멀리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국화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⁸⁾

이 부분은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며, 또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의를 위해 자결까지 하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의의 무거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같은 주제를 놓고 원작과 개작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소한 약속이지만 신의를 지키기 위해 ‘깨끗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사건은 자체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원작에서는 명백하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쪽을 강조하고 있다. 원작에서의 자결은 신의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약속을 기억해냈거나, 혹은 살아서 하루 만에 동생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죽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장례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시하고 있으며, 죽은 뒤에도 유령의 모습으로 한탄을 하며 진혼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정말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미련하게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원작에서의 교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원통하게 버리는 한이 있어도 신의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깃카노지기리」에서의 모습은 미묘하게 다른 듯 보인다. ‘사소한 약속이지만 신의를 지키기 위해 깨끗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 개작에서는 ‘깨끗이 목숨을 버린다’쪽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다.⁹⁾ 소에몬은 강제로 구금이 된 상황이었으며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은 즉 약속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구금된 상태로 약속일 6일 전이 되는 시점에 이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혹시나 그 사이에 탈출을 하더라도 제때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中村幸彦(2003)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78 英草紙 西山物語 雨月物語 春雨物語』小学館, p.300 필자역

9) 勝倉寿一(1977) 『雨月物語構想論』東京教育出版センター, pp.94-96

소에몬은 원작의 범식과 다르게 일주일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속한 날 정확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날 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죽을 수도 없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인식하고 차분히 그 날을 기다리는 모습은, 다급하게 죽은 범식과는 달리 상당한 비장감을 준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면서도 딱히 단지에게 유언이라거나 사정을 한탄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놀랍다.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이 있으니 그럴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고, 만약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면 단지가 황급히 소에몬을 풀어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아마고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아카나 단지(赤穴丹治)를 배려해서인지, 아니면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싫어서였는지, 소에몬은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목숨을 버린다.

나중에 혼령이 되어 이야기하는 정황설명에 따르면 소에몬이 죽는 이유는 아마고와 단지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에몬에게서 딱히 무슨 진혼이나 복수 따위의 부탁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효도하면서 잘 살 것만을 당부하고 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은 범식은, 설사 약속을 파기한다고 해도 비교적 불명예가 덜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굳이 작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하고 계다가 원하는 것 마저 없었으니 그야말로 더없이 깨끗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일본무사도의 대표적인 책 중에 앞서도 언급한 『하가쿠레』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무사도의 성전으로서, 특히 메이지시대 이후 관료와 군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다. 이 책은 ‘무사도라는 것은 죽는 일에서부터 발견 된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며, 내용을 보면 ‘죽을까 살까 고민할 때에는 죽는 편이 낫다’,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 ‘죽는다는 생각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죽게 될 때의 심경을 상상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죽어두라’,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무사도란 참된 죽음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일로 헛되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으니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¹⁰⁾ 등의 문장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하가쿠레』에서는 구질구질하고 불명예스럽게 살기보다 깨끗하게 죽는 상쾌함이야말로 무엇보다 무사의 미덕이라 여겨졌다. 할복은 숭고한 행위였으며 불명예를 죽음으로 씻지 않는 무시아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에도시대 최고 인기의 문학작품인 『주신구라(忠臣蔵)』¹¹⁾

10) 이원희(2000) 『일본인과 죽음』영남대학교 출판부, pp.125-127

11) 정식 이름은 가나데혼 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蔵). 44명의 로닌(浪人)이라고도 한다. 이 가부키 극은 원래 1748년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雲)가 나미키 소스케(並木宗輔) 미요시 소라쿠(三好松洛)와 함께 인

를 보면 무사들의 극기와 충의를 상찬하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클라이맥스는 사쿠라 꽃잎 밑에서 불명예를 씻고 모두가 깨끗하게 활복을 하는 부분이다. 그 외 유명한 이야기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아들이 도둑의 누명을 씌었다고 하여 아들을 죽여 불명예를 씻고 의심한 자를 죽인 후 자신까지 자결한 이야기는 무사도의 정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결은 무사도의 중심에 놓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결이 너무 강조되던 나머지 자연사조차 무사의 수치로 여겨질 정도였다.¹²⁾

소에몬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보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하가쿠레』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사도의 철칙에 그대로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에몬에 대한 다른 묘사들도 하나하나 무사도의 미덕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부분이야말로 무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학자이자 교양인으로서 무사도에도 지식이 있던 작가 아키 나리가 중국의 소설『사생교』를 보고 무사도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작가가 주인공을 무사로 설정한 점, 무사를 완벽하게 미화하여 그린 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무사도에 어울리게 대폭 수정된 점 등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2.3. 무사도 설정과 작자의 의도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이 작품에서 무사가 주인공으로 설정된 이유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소에몬만이 무사이고 사몬은 학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본래 목적은 주인공들의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 다 무사로 설정되어도 내용상 차이는 없다. 무사도의 찬양이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소에몬을 무사로 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몬을 학자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둘이 모두 무사로 설정되는 쪽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근본적으로 생판 남과 의형제를 맺는 일 자체가 없을뿐더러, 우정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계급인 무사끼리에 한정될 뿐이지 다른 계급과 우정을 나누는 일은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작품은 『인토쿠다이헤이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실제 무사들이 활약했던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군기물을 원작으로 하여 현실성을

형극인 분라쿠(文樂)를 위해 대본으로 쓴 것에서 따온 것이다. 모두 11막으로 이루어지는 이 작품은 1701-03년에 일어났던 47명의 로닌들이 자신들의 주군을 자살로 몰고간 사람에 대해 2년을 기다려 원수를 갚았던 사건을 극화한 것이다. 워낙 길이가 길어 짧게 각색한 작품이 쓰였다. 이 작품은 많은 대중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준섭(2005)『주신구라 47인 사무라이의 복수극』살림출판사, pp.4-9

12) 구태훈. 앞의 책, pp.271-278

획득했는데 새삼스럽게 주인공 중 한명을 무사가 아닌 학자로 설정해 현실성을 손해 봤으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주역 둘이 다른 계급이라는 이 부자연스러운 설정을 일부러 만듦으로 인해 둘의 우정이 흔치 않은 것 이었다든 점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가득 차 있는 유명한 괴기물이기도 하다. 무대는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이니,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판타지 속에서 신의라는 주제는 더욱 강렬하게 전해지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사몬이 굳이 학자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가지의 논거를 더한다면, 사몬을 학자로 설정함으로써 소에몬만이 진정한 무사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무사에 대한 미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에몬과 사몬을 둘 다 무사로 설정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 경우 사몬까지 이상적으로 그리게 되면 신분 간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사라는 신분자체에 대한 존중과 미화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몬을 무사로 그리되 소에몬과 비교해서 미덕이 모자란 무사로 그리게 되면, 소에몬의 위대함은 그저 소에몬 개인이 위대한 것일 뿐 굳이 무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소에몬의 무사다운 죽음에 집중하게 하려는 아키나리의 의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다.

아키나리는 사몬을 학자로 설정해, 그 반대 측에 서있는 소에몬을 무사라는 직업 그 자체를 대변하는 인물, 무사의 거울이자 무사의 화신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일본 문화 내에서 무사가 받는 존중과 동경을 작품의 주인공인 소에몬에게 그대로 옮겨올 수 있었고, ‘완벽한 무사는 이렇게 신의를 지키니 신이란 좋은 것이다’라는 작품의 주제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말에 가서는 무사가 아닌 사몬까지도 소에몬의 무사다운 죽음에 감명을 받아 무사도를 따르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나는 신의를 위해 일부러 여기에 왔다. 너는 다시 한 번 불의 때문에 오명을 남기도록 해라. 말을 마치자마자 사몬은 칼을 뽑아 베었고 단지는 그 한칼에 자리에 쓰러져버렸다.¹³⁾

흡사 아코 낭인을 보는 듯한 사몬의 복수극은, 무사도가 신분과 직업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따를만한 도덕 체계임을 작품 내에서 드러내고 있다.

13) 中村幸彦. 앞의 책, p.305

지금까지의 작품해석을 통해, 소에몬이 무사도를 체현하고 있는 주인공임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주인공인 사몬을 학자로 설정함으로써 소에몬에 대한 묘사가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하나있는데, ‘주인공 중에서는 소에몬만이 무사’이지만, ‘등장인물 중에서 소에몬만이 무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소에몬은 무사도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무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작품 속에 설정된 가상인물일 뿐이다. 이 작품에는 정말 유명한 전국시대의 무사로서 유명했던 ‘실존무사’가 등장한다. 바로 아마고 쓰네히사라는 인물이다.

아마고 쓰네히사는 「깃카노지گیری」의 전거중 하나인 『인토쿠다이헤이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아마고 쓰네히사는 상당한 군략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특히 모락이 천재적으로 뛰어나 아키의 모리 모토나리, 비젠의 우키나 나오히에와 함께 주고쿠의 3대 모장으로 불리웠다. 롯가쿠(六角)의 가신이었지만 하극상을 통해 스스로 전국 다이묘에 올랐으며, 이후 강적 오우치와 싸우며 센고코시대의 주역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입지적인 삶을 살았다. 한편 하극상의 과정을 돌파한 다이묘들은 많았지만 아마고 쓰네히사의 하극상은 특히 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가미의 호조 소운, 미노의 사이토 도산과 함께 하극상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이처럼 전국 난세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한 지역에 웅거하는 지위까지 올랐으니 참으로 비범한 인물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¹⁴⁾

하지만 「깃카노지گیری」에서 아마고 쓰네히사는 이래저래 좋지 않은 인식을 받고 있다. 실존인물인 만큼 현실감을 더해주기 위해 ‘특출한 용맹’이니 ‘용병술에 일가견이 있다’느니 실제의 아마고의 특기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서술은 거기까지이다. 가장 처음 롯가쿠에 대한 하극상부터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 엄청난 의심을 품고 있다.’, ‘신뢰하는 가신이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으니 아마고의 가풍 그대로다’, ‘어떻게 형님이 이곳에서 머무실 수 있었겠는가?’ 등의 서술을 보면 이는 거의 일방적인 매도에 가깝다.

실제 아마고 쓰네히사는 오히려 작품의 모습과는 반대로 가신을 후대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재물을 아끼지 않고 가실들에게 베풀었으며 거꾸로 가신들이 황송해 어쩔 줄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¹⁵⁾ 물론 가신들을 후대 한 것은 머리가 좋은 인물답게 돈으로 환심을 산 것 일뿐 실제로는 의심하고 있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작품 내에서 묘사된 것처럼 며칠 보고 눈치 챌 정도였으면 분명히 역사에 한마디라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아마고 쓰네히사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14) 구태훈. 앞의 책, pp.86-105

15) 時野佐一郎(2008) 『武士道の真実』, pp.87-107

작품에 선명한 대비효과를 주고 있다. 바른 무사 소에몬과 바르지 못한 무사 쓰네히사를 완전히 대비되게 묘사함으로써 소에몬의 무사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긴다. 대체 왜 아마고 쓰네히사는 실제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는가? 그리고 아마고 쓰네히사의 어떤 점이 부정적인가?

아마고 쓰네히사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하극상을 대표하는 무사라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윗사람을 쳐 자리를 빼앗는 하극상은 무사도의 충성 개념으로 보면 경멸해 마지않을 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아마고는 모략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무사도에 있어서 모장은 아무래도 교활한 인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모략에 능하다고 해서 교언영색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늘변을 권장하는 무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을 위해 머리를 굴리는 무사가 아무래도 좋게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큰 이미지 때문에 아마고 쓰네히사는 무사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며, 작품 속에서 이런 저런 부정적 묘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4. 무사도문화의 실제와 허상

작품 속에서 무사도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아마고 쓰네히사가 실제로는 전국시대에 크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딱히 비난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출세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란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무사들’의 시대였던 전국시대에 무사도를 벗어난 행동을 보이던 아마고 쓰네히사가 비난을 받아 공공의 적과 같은 표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마쓰나가 히사히데와 같은 인물은 당시부터 진심으로 악인으로 불리며 경원시되었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아마고 쓰네히사의 행동을 다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전국시대의 다이묘들은 하극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국시대 이전의 영주들은 정부에서 임명한 슈고(守護)¹⁶⁾들이었기 때문에, 난세가 되어 난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슈고를 대신해서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하극상밖에 없었다. 실제로 호조, 사이토, 아사이 가문 등을 비롯한 많은 가문들이 하극상으로 다이묘가 될 수 있었다. 하극상을 거쳤다는 것은 난세의 다이묘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 다른 무사들에게 비난받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를 유폐하고 다이묘에 오른 다케다 신젠(武田信玄)은 경멸을 받기는커녕 그 능력으로 인해 평생 무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16)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와 아시카가 시대(足利時代)에 존재했던 군사적 성격을 띤 지방관.

하극상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전국시대의 충성개념은 무사도에서의 충성 개념과는 꽤나 다르다. 무사도에서 충신불사이군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전국시대까지의 무사들은 매우 떳떳하게 두명 이상의 주군을 섬길 수 있었다. 능력 나름인 것이다. 봉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쌍무적 계약관계로, 주군과 가신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관계일 뿐, 중앙집권제도에서처럼 가신이 일방적인 충성을 바치는 관계가 아니다. 계약한 관계인만큼 서로에 대한 의무와 신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투에서 패해 포로가 된 후 상대편에 투항하는 것은 절조가 없다고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도쿠가와와 후다이 이시카와 가즈마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세력을 빠져나와 다른 세력에 붙는 일조차 배신당한 측에서나 비난을 할 뿐 다른 이가 그 일에 대해 추궁을 하는 일도 없었다.

보통의 봉건사회의 충성관념이 이러한데 난세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생존과 번영이 지상목표인 난세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물을 뿐 충성이나 절개를 묻지 않았다. 물론 난세라고 하더라도 의리가 없는 인물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경원시되었으며, 마쓰나가 히사히데와 같은 인물이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의리만 지켜주는 경우 능력을 봐서 기꺼이 자신의 가신으로 받아들였다. (그 마쓰나가 히사히데조차 오다 노부나가는 가신으로 받아들였다.) 도도 다카도라와 같은 경우 몇 번이나 주군을 바꾸었지만 다재다능한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중용되어 크게 출세하였고,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또한 모략을 잘 꾸미는 것도 그렇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난세에서 모략을 잘 꾸미는 것은 무사로서 다시없을 장점이다.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비난은 직접 모략에 당하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일 뿐, 모략을 잘 꾸미니 무사답지 않다거나 하는 말은 전국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전국의 무사들은 승리와 생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략을 짜냈고, 모략이나 군략에 능한 무사는 존중을 받았다.

이마고 쓰네히사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작품전체를 두고 비교해 보자. 작품 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앞의 두 가지(하극상, 모략)라고 한다면, 작품 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깨끗한 자결이다. 그렇다면 이 깨끗한 자결이란 무사도의 원칙이 에도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였는가?

물론 무사가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 죽을 것 담백하고 당당하게 죽는다는 것이지, 사소한 일로 죽어서 오명을 씻거나 하는 것을 미화한 것은 아니었다. 난세는 무엇보다 생존이 가장 우선시되는 세상이다. 가만히 있어도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

은 현실이지, 멋진 것만은 아니었다. 불명예가 있으면 살아서 씻으면 되는 것이고, 패전을 했으면 살아남아서 다음에 이기면 되는 것이다. 역사 속 그 유명한 겐페이와 전쟁에서도 전투마다 발생하는 사망자는 몇 십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전투문화가 특이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무사들이 생존을 중시했다는 점은 잘 알 수 있다.

어쨌든 자결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신분의 무사가 아닌 경우 자결보다는 되도록 전사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죽음이었다. 무사시보 벤케이는 끝까지 싸우다 선채로 죽었으며, 미나모토 요시쓰네는 막다른 곳에 몰려서야 자결을 하였다. 닛타 요시사다는 몇 번을 패전하였지만 계속하여 재기를 노리다가 끝내 전사하였다. 전투에 나가 패전하여 명예를 실수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군에게 가이에키(改易)를 당할 때 당할지언정 나서서 자결을 한다거나 옥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¹⁷⁾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화의 시대인 에도시대 이후 할복이 유행을 하고 자결이 숭상 받게 되었다. 죽음은 멋있는 피난처로 여겨져 작은 불명예에도 쉽게 목숨을 버리곤 했다. 이전 시대의 무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켰던 목숨을 것처럼 쉽게 내다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사도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무사로 묘사된 소에몬이, 과거의 실제 무사들에게는 그다지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5. 무사도문화의 변용과 내셔널리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무사도라는 것은 실제 난세를 살아가던 무사들의 삶과 정신을 그다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사도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난세에 살던 ‘진짜 무사들’의 도덕체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 살던 ‘겉모습만 무사들’의 도덕체계를 우리가 ‘무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난세를 훌륭하게 헤쳐 나간 무사가 작품 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품 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주인공은 무사도의 화신이라고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무사도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가 무사의 역사라고

17) 구태훈. 앞의 책, pp.174-187

하는 만큼 무사도의 역사도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사도는 무사도가 성립된 에도시대의 바로 전 시대였던 전국시대에서조차 제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도시대에는 제대로 무사도가 뿌리를 내렸냐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사의 수는 총 인구의 1할도 되지 못하는 수였으며, 그 무사들의 교육 또한 유교경전과 문장 등이 중심이었다. 즉 전형적인 ‘무사교육’은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하가쿠레』가 에도시대에 쓰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무사도의 개념은 에도시대부터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무사들의 도덕체계로서 교양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무사도는 『주신구라』와 같은 작품을 통해 민간에도 조금씩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메이지유신을 겪고 18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무사도는 군국주의를 추진하는 정부에 의해 갑작스럽게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무사도에 관한 책들이 쏟아질 듯이 나왔으며, 소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는 정신이 사쿠라에 대한 미의식과 어우러져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에도시대 당시부터 ‘만들어진 전통’이었던 무사도는 메이지시대에 이르러 완벽하게 이데올로기화 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에도시대에 자결이 숭상된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결을 숭상하는 무사도가 이데올로기화 된 이후, 다시 전쟁이 발발해 난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결은 계속해서 숭상을 받는다.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에서, 미얀마에서, 남양군도에서, 태평양에서,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웠으며 일부는 승리하고 일부는 패배하였다. 그 일부는 전사하였으며 일부는 생존하였다. 원래 제대로 된 전쟁이라면 승리한 이들은 영웅이 될 것이고 전사한 이들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이름을 크게 남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패전을 거듭한 무능한 지휘관이자 다수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이끈 노기 마레스케는 천황을 따라 자결했다는 이유로 군신으로 떠받들어지며 국민적인 존경을 받게 된다.¹⁸⁾ 게다가 전쟁 막바지에는 생존조차도 무사의 수치로 여겼는지, 옥쇄작전이니 특공작전이니 하는 명령까지 내려지는데 이른다. 오키나와 옥쇄작전은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엄청난 희생자를 냈으며 떨어지는 사쿠라로 비유되는 가미카제 작전은 젊은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무사도의 환상 속에서 특공대는 자의 반 타의반으로 출격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힘이며 무서움이다. 태평양 전쟁을 물들인 무사도 이데올로기를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군부이다. 하지만 유래를 찾자면 에도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8) 최관(2007)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 고려대학교 출판부, pp.97-102

3. 마치며

본고를 통하여 「깃카노지기리」란 작품이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주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소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품의 행간 속에는 ‘무사도에 대한 미화’와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찬양’이라는 주제도 숨겨져 있다고 연역하였다. 그 주제는 ‘무사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이상적인 무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이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 무사도의 이데올로기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무사도 자체가 처음부터 국민을 전쟁과 희생으로 내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의 영혼, 무사도』를 집필한 니토베 이나조가 책을 쓴 이유는 외국에 대한 일본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서양의 기사도와 같은 것이 일본에도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여 일본의 국격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하카쿠레』 또한 죽음을 일방적으로 찬미하는 서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편적인 도덕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 조선의 성리학 서적과 비슷한 점이 있다.

우에다 아키나리가 「깃카노지기리」를 집필했을 때 어느 정도 무사도와 무사다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의를 강조하는 수단이자 명예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키나리가 아무리 국학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아직 막부 말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가 알지도 못했던 군국주의자라거나 무사도 지상 주의자라거나 하는 누명까지 씌워서는 곤란하다. 아키나리의 다른 작품을 보면 무사도에서 비교적 금기시하는 물욕을 적극 긍정하는 등, 무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맹종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다만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작가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작가들이 무사를 미화하고 무사도를 찬양하는 작품을 쓴 것이 이후 무사도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아키나리든 지카마쓰이든 단지 무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교훈과 재미를 전달하고 있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무사에 대한 존중과 무사도에 대한 경외심을 시나브로 갖게 하여, 이후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무사도 이데올로기가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작품 속에 드러나는 무사도의 모습을 파헤쳐 분석하는 이유는, 작가가 예상치도 못한 부분까지 소급해 잘못을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본과 그 주위 나라를 비극으로 이끈 무사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잘못을 미리 막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구태훈(2005) 『일본무사도』태학사, pp.168-169
구태훈. 앞의 책, pp.153-156
구태훈, 앞의 책, pp.271-278
구태훈. 앞의 책, pp.86-105
구태훈. 앞의 책, pp.174-187
이원희(2000) 『일본인과 죽음』영남대학교 출판부, pp.125-127
이준섭(2005) 『주신구라 47인 사무라이의 복수극』살림출판사, pp.4-9
최 관(2007)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고려대학교 출판부, pp.97-102
中村幸彦(2003)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78 英草紙 西山物語 雨月物語 春雨物語』小学館, p.300
中村幸彦. 앞의 책, p.305
勝倉寿一(1977) 『雨月物語構想論』東京教育出版センター, pp.94-96
時野佐一郎(2008) 『武士道の真実』, pp.87-107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要旨>

작품 속에 설정된 무사도문화와 그 의미

본고를 통하여 「깃카노지기리」란 작품이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주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소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품의 행간 속에는 ‘무사도에 대한 미화’와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찬양’이라는 주제도 숨겨져 있다고 연역하였다. 그 주제는 ‘무사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이상적인 무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이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드러나는 무사도의 모습을 파헤쳐 분석하는 이유는, 작가가 예상치도 못한 부분까지 소급해 잘못을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다. 일본과 그 주위 나라를 비극으로 이끈 무사도문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잘못을 미리 막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etting and the meaning of the Bushido in Text

Through this study, "gikkanojigiri" means Superficially, 'faith' as the subject, and of course that i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and it obviously, but the lines of work is 'Praise. of Bushido' and 'praise for honorable Death in the theme was hidden. The subject of the 'ideal samurai warrior and completely follow through "is passed, and this configuration is a reflection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 also showed that. Revealed in this work to analyze the reason for digging the look of Bushido, the authors also did not expect to be investigated for the wrong part hamyi sogeuphae not to. Japan and its surrounding country, what a tragedy that led to development of Bushido ideology and how it has been distorted by looking forward, to be the fault of another significant advance in preventing a tragedy to avoid repeating its purpose was to 's positions